

# K-곤충,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책

### 농진청·세계은행 협력, 워싱턴서 기념행사 열어

식용 곤충을 활용해 아프리카 가아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 이하 농진청)과 세계은행(총재 데이비드 맬패스)은 지난 19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사업 착수 보고서 발간 기념행사를 열었다.

‘아프리카의 곤충과 수경재배, 새로운 순환식품경제’를 주제로 열린 착수 보고회는 박병홍 농진청장의 축사에 이어 워르겐 보켈레 세계은행 부회장과 도테 베르너 세계은행 아프리카 사업팀장(농업 책임 경제학자), 케냐의

곤충 농업인 탈리쉬 후아베르트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농촌진흥청과 곤충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도테 베르너 박사는 이날 강연에서 아프리카 가아 해결을 위한 대체식품으로서 식용 곤충의 효율성과 한국 곤충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착수 보고회는 세계은행 누리집을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됐다.

한편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2021년 기준 남아프리카 전역에서 가뭄과 홍수, 경제적 혼란으로 4,500만 명이 기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농진청은 한국의 농업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해 아프리카 식량 부족 문제 등 국제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세계은행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 체결에 따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교류 ▲관심 협력 분야와 협력 방안 관련 정보 공유 ▲농업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농식품 기술혁신 분야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개도국 농업 생산성과 지속성 향상을 위한 협력사업 공동 발굴과 기획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식량안

보를 위한 식용 곤충 활용 국가보고서 마련, 곤충산업 우수 기술 협력 등이 핵심사업으로 진행되며 핵심사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GTF)로 지원된다. 이어서 향후 세계은행 주력 사업으로 확대해 예정이다.

박 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정책적으로 곤충산업을 육성해 온 결과, 식용 곤충 10종을 새로운 식품 원료로 개발하고 곤충 활용 식품 180여 종을 개발해 산업화했다”라며 “세계은행과의 협력으로 아프리카에 식용 곤충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국의 곤충 산업기술을 전수해 아프리카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은, 자산관리 사업 강화

#### VM 임명식·초청간담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19일 본점 연수원에서 자산관리(WM)사업 강화를 위한 2022년 VM 임명식 및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전북은행은 WM사업 강화 및 확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인력 VM(Vip Manager, 이하 VM) 양성을 통해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고객들의 투자성향에 맞는 맞춤형 재무설계를 지원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 이후 자산관리 전문인력을 각 영업점 12곳에 배치한 것에 이어 올해는 8곳에 추가 배치했다.

또한 금융상담 전문가인 VM양성을 위한 금융연수원 VM아카데미 주말맞춤연수와 비대면 ZOOM을 활용한 전문가 강의 등으로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VM직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19일 본점 연수원에서 자산관리(WM)사업 강화를 위한 2022년 VM 임명식 및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 올해 설 성수품 구입비용 '안정세'

### 나물류·쇠고기 등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25.7% 저렴

설 명절을 약 2주 앞두고 설 차례상 차림비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28만5,522원인 것으로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구매 수요가 증가하며 0.4% 소폭 상승했으나, 대형유통업체는 35만7,188원으로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명절 할인 등에 힘입어 전주 대비 1.7% 하락했다.

이런 조사는 지난 11일에 이어 19일에 전국 19개 지역의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 결과다. 품목 대부분이 전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배추·무 등의 채소류와 쇠고기·계란은 정부 물량 방출에 힘입어 하락했다. 반면, 시금치·고사리·도라지 등의 나물류는 수요가 증가하며 소폭 상승했다. 업체별로 비교하면,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25.7%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라지·고사리 등의 나물류는 40% 이상 쇠고기는 20% 이상 저렴했다. 반면, 쌀은 대형

유통업체가 전통시장에 비해 17% 이상 저렴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사과·배·배추·무 등 주요 성수품을 확대 공급하고, 농축산물 소비쿠폰과 유통업계 할인 행사를 연계해 할인 폭을 추가로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춘진 사장은 “올해 성수품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성수품 수급 상황 또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다음 주까지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다가오는 이날 28일 한 차례 더 성수품 구입비용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전통 및 간소화 차례상 차림 비용과 더불어 대형유통업체 및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선물세트 가격경기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관련 자료는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희 기자

### NH, 개인사업자 대출한도 금리 우대 '기업성장론' 출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소상공인 확대 등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하는 NH기업성장론을 출시했다.

20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NH기업성장론은 농협은행에서 산업별 위험수준에 따라 개별사업에 부여한 산업관리등급 하나기업고객등급 등에 따라 대출한도를 우대하고 매출액 및 누적주주채와 증가, 시설자금 중 자기자 금비중 등에 따라 최대 15%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월상환 및 금리상승부담 경감을 위해 혼합상환방식을 도입하는 등 상환방법을 다양화 했고 총 5,000억원 한도 이내에서 금리변동주기를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업종에 따라 NH기업경영컨설팅 및 농식품업컨설팅 등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윤상 기자



### 현대차·기아, 설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설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설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는 현대차 전국 22개 하이테크센터(구 서비스센터) 중 21개 하이테크센터(수원 하이테크센터 공사로 서비스 불가)와 1,331개 블루핸즈, 기아 전국 18개 서비스센터 및 783개 오토큐를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설 귀성길 장거리, 장시간 운행에 앞서 고객 차량의 주요 부품 및 기능을 점검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객의 안전한 귀성길을 돕고자 이번 무상 점검 서비스를 마련했다. 현대차·기아는 서비스 거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엔진/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점검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마모상태 및 공기압 점검 ▲전조등, 제동등 미등 등 각종 등화 장치 점검 ▲워셔액 보충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차 블루핸즈와 기아 오토큐를 통해 점검을 희망하는 고객은 현대차 MyHyundai, 제네시스 My Genesis, 기아 MY KIA 등 각자 통합 고객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서 무상 점검 쿠폰을 다운로드한 후 기간 내 방문하면 점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역센터로 입회할 경우에는 사전 예약 후 방문 시 점검이 가능하다. /원주=이종복 기자

## 새만금청, 국내 진출 외국기업 투자 유도

### 독일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 만나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20일 한독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경제전망회의에 참석해 새만금에서의 사업기회를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이번 행사에는 실트룬, 지멘스 비엠펙스 등 한독상공회의소 회원사들과 다수의 글로벌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 독일 등 경제관계의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회복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 사업과 미래형 자동차를 비롯한 신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 우수한 투자혜택(인센티브) 등 미래 전략산업의 투자처로서 새만금의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소개했다.

기업 대표들은 RE100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그린 산단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와 미래형 자동차 등 신산업 집적화단지 구축에 매진하고 있는 새만금의 산업생태계 조성 상황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법인세 감면과 저렴한 장기임대용지 제공 등의 차별화된 투자혜택에도 호응을 보이며, 새만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충모 청장은 “새만금 산단은 3GW에 달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인근에 둔 세계 유일의 산단으로 RE100 실현이 가능한 만큼 경제성장 과 환경보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린성장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이 말로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처다”라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유호상 기자

### 건협 전북도회,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 강습회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20일 건설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에서는 윤진식 노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사업주의 책임범위, 사업장 내 안전보건확보 방안 등 중소기업에서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상식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은 “우리 건설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점검할 사항과 각종 의무 이행안 등에 대한 설명을 위해 이번 강습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사회적경제마켓 쓱쓱자람’

남원사회적경제협, 설 명절 선물세트 현장 판매

남원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 강병규가 20일, 시청로비에서 설 명절 선물세트 현장 판매행사인 ‘사회적경제마켓 쓱쓱자람’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남원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내 9개 업체(달오름마을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웅치마을영농회, (유)메밀꽃피는항아리, 지리산구절초영농조합법인, 흥부마을영농조합법인, 지리산허리영농조합법인, 남원김부각협동조합,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가 참여했다.

남원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농식품 가공 및 체험·유통, 문화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업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금

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공공이익과 지역순환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시장 각부서 구매팀장 및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물품 상담을 하는 등 활발한 판촉활동을 펼쳤으며, 이번 선물세트는 예년보다 풍성하고 3종 세트로 구성 다양한 가격대로 준비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한편 안순영 일자리 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우선구매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윤리적 소비를 앞장서 실천하고,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 순환 소비문화 조성에 적극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115곳 적발

### 농관원, 작년 단속 결과 “올해 RPA시스템 도입 등 농식품 원산지 관리 강화”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원장 이주영, 이하 농관원)은 지난 2021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3,115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단속을 줄이고, 농식품의 수입 및 가격동향 등 유통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업체(16만1,273개소)는 지난 2020년(17만4,353개소)보다 3.5% 감소했으나, 적발업체(3,115개소)는 지난 2020년(2,969개소)보다 4.9% 증가하는 등 원산지 단속이 보다 효율화됐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누리집 등에 공표했다.

이번 원산지 단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으며, 수입산 비위생감치 등 국민적 우려가 큰 품목이나 수입량이 급증하는 품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했다. 또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효과적인 원산지 단속을 추진했다.

한편 농관원은 올해도 주요 농식품의 수입 및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 도입 및 수입농산물 등 유통0터관리제도와 연계해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사항으로는 ▲RPA 시스템으로 수입동향 및 국내산 수입산 가격 차등률 자동 추측 ▲간간 자율관리체계 구축 ▲사자비 전담반(38개 반/119명 → 50개 반 200명) 확대·운영 ▲수입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 강화 ▲신규대상 품목 확대 ▲닭고기·쇠고기 검정키트 개발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관원 이주영 원장은 “지난해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과 농식품 수입 및 통신판매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해 원산지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올해도 비대면 농식품 거래 증가 및 농식품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해 통신판매 관리 강화, 수입농산물 등의 이력 관리, 효과적인 원산지 검정법 개발 등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보다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중기 연구인력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에를 원하기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지원방식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지원과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파견지원 두 가지가 있다.

채용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또한 파견지원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최대 6년간(3+3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 비법(노하우) 전수 및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는 파견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달 7일부터 18일 동안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면 되며,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최대희 기자